

Ep.6 안내견 학교 이야기_스크립트

우리

우리들이 사는 세상 6화 복잡한 하루 속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피식 웃게 되는 시간 여기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오늘은 또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안내견 학교에서 근무하는 유석중 프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석중 프로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저희가 되게 평평 눈이 내렸을 때 한 번 또 뵙고, 이제는 조금 따뜻해져서 꽃이 필 때쯤에 또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석중 프로

잘 지냈습니다.

우리

평범하게 그래서 여기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편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석중 프로

네 저는 안내견 학교에서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안내견을 교육해서 분양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동시에 여기에 많은 이제 또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안내견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니까 홍보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저희 거울에 왔었을 때 또 이렇게 한번 교육도 해주시ㄴ 저 되게 눈가가 축축해졌었는데 티를 안 났거든요. 되게 그 과정들이 몽글하게 하더라고요. 뭔가 사람도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가고 나이 들고 또 이런 게 요즘 또 넷플릭스에 폭삭 속았수다 또 내용처럼 이제 강아지도 안내견도 안내견의 견생이 이제 작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퍼피워킹을 통해서 또 안내견이 분양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좀 마음을 울리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들었었고요. 혹시 그러면 저희 안내견 학교에서 일하게 되신 이유나 목표 동기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유석중 프로

일단 저는 안내견 학교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내견 학교에서 내가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도 않았고요. 이러면 이제 재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나는 굳이 꼭 금메달을 딸 생각은 없었는데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유석중 프로

여하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안내견하고 처음 생활을 시작한 게 대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안내견을 만나서 그 안내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겪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글로도 쓰기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던 차에 안내견 학교에서 마침 시각장애인을 한 명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었고 그 계획 안에 그러면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망에 들어왔고 삼성에서 이제 인재를 알아본 거죠.

유석중 프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들어온 건데 네 중요한 건 그게예요. 제가 뭘 하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또는 그 일을 하게 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뭔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거를 하게끔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사실 저도 이제 물론 사전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 저 또한도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닻이라는 회사에서.....

유석중 프로

그게 초등학교 때 꿈은 아니잖아요.

유석중 프로

초등학교 때 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따위를 꾸지 않거든요. 어떻게 살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굴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살아서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제일 허망한 게 뭐냐면 너 커서 뭐 될래요? 너 꿈이 뭐야?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질문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정말 쓸데없고 쓸데없는 질문이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싶긴 해요.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고 싶어? 그렇게 좀 질문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너 뭐 될래 그러면 난 될 거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알아?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10년 뒤 20년 뒤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했었죠. 내가 크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원 없이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원 없이 설명하고 계신 거 아니예요?

유석중 프로

그러니까요 원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게 되면 내지는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 그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이 너 앞으로 뭐 될까 아니면 꿈이 뭐였어? 이거 하려고 도대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어? 이거는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또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원래는 또 연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좀 내가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청각장애인들도 보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장애인에 관련된 회사에 들어와서 장애인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건 다르지만 또 같은 목표를 향해 제가 또 꿈을 이뤄가는 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그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미있고 잘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석중 프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회자님도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은연 중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 누리면서 살지 거기에 대한 아마 갈증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부모님을 딱 봤을 때 아니 나는 들려서 아걸 이렇게 즐겁게 듣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름의 억울함이 다른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공통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봐요.

우리

또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설득력이 딱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안내견의 이야기를 담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취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안내견 학교에도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지금 일하시면서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유석중 프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안내견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즐거워요.

우리

시각장애인의 삶이요?

유석중 프로

네 시각장애인이든 아니든 이 옆 안내견 양성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분들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거든요. 그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의 물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재미있어요.

우리

기억에 남는 변화된 에피소드 있을까요?

유석중 프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되게 하찮아져요. 이게 하찮아지고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안내견을 처음 대학생 때 같이 생활한다고 했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 네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그 강아지까지 키우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잠시 했다가 듣다 보니까 지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아니 왜 내 몸 하나 건사 못하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견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생활을 해보니 나한테 어떤 의식이 생겼냐면 주인 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주종 관계를 이루는 주인의식이 아니고

우리

책임감?

유석중 프로

맞아요. 책임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애한테 밥을 안 주면 애는 큰일 나요.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한 큰 의미가 돼요. 근데 장애라고 하는 게요. 그런 거예요. 저는 장애를 뭐라고 정의를 하나면 주인의식이 사라진 아이의 상태로 잠깐 돌아간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도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뭐 선천성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중도에 장애가 되면요. 일단 아이의 상태로 돌아가요. 누군가 챙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보살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개인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말 극히 어린 상태로 일단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주인의식을 찾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매우매우 많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견하고 생활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아 애가 나를 굉장한 큰 주인의식을 가진 한 주체로서 나를 작용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애는 보살펴줘야 되는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살피다 보면 내가 없이는 도저히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아이를 측은하게 여기는 또 나의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애정을 주고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쁨도 알게 되고요. 그게 어떤 형태이냐면 사실은 안내견이든 뭐든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유석중 프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애정을 준다는 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내견을 데리고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치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애정을 주고 책임을 감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맞이하게 되고 그 과정을 보는 게 사실은 가장ダイナ믹하고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 뭐 사랑이든 애정이든 누군가를 보살피는 행위를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가장 어찌 보면 이기적인 행위예요. 근데 그 이기적인 행위가 굉장히 이타적인 거죠. 그래서 뭐 그게 가장 이 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

우리

저는 사실 비단 진짜 이 안내견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되게 주인에 대한 책임감 강아지 그 안내견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이게 비단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비장애인들이 강아지를 분양하거나 혹은 어떤 한 생명을 이제 키우게 되었을 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또 이렇게 되게 견사도 보니까 안내견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만 안내견이 될 수 있고 또 시각장애인과 함께 동반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을 조금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유석중 프로

전 세계적으로 안내견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견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리트리버라고 하는 견종인데요.

우리

네 골든 리트리버 아니죠?

유석중 프로

아니예요. 래브라도 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있는데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거의 한 **65%** 정도를 차지해요. 네 그리고 골든이 한 **5%** 그럼 **70%**죠. 나머지 **20%**가 이제 래브라도와 골든을 섞은 거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 기타 견종이에요.

우리

맞아요. 저희 씨썬 요번에 갔는데요. 푸들도 있고 셰퍼드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견종으로 안내견을 하시더라고요. 또 새롭더라고요.

유석중 프로

전 세계 **10%**를 보증 굉장히 사실은 소수의. 특별한 견종인데 근데 이제 리트리버를 안내견으로 주로 활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교육할 때 이 두 가지 가지고 항상 싸웁니다. 타고난 게 중요하냐 경험하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맨날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애는 원래 머리가 좋은데 노력은 안 해서 그래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거의 다 구합니다. 그냥 못하게 태어난 거예요

대부분 뭐 노력을 안 해 갖고 뭐 안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못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엄마 아빠 닮은 거예요. 그런 건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보통 통계를 내보면요. 기질이 한 **40%** 경험이 한 **60%**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질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유석중 프로

40%면 네 그래서 그 40%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골라야 되는데 그게 리트리버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일단은 외모가 좋아야 돼요. 외모가 잘 생겨야 돼요. 잘 생겨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비호감 주지 않는 호감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크기가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작아도 견인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네스 손잡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힘이 잘 전달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말 퀴즈나 시츄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아이들의 성향이에요. 이 성향이 뭐냐 하면 애네들이 좋은 건 오래 기억하고 나쁜 걸 굉장히 빨리 까먹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오래 기억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언제 무엇을 보더라도 그게 항상 신선하다는 거예요.

나쁜 걸 빨리 까먹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동물의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과 마주하면 최대한 그걸 오래 기억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야 같은 유사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기억의 발판으로 삼아서 빨리 도망가거나 공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트리버는 희한하게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나쁜 걸 빨리 까먹어서 다음에 똑같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걸 까먹어서 똑같이 또 행동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러면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고 있느냐 하면 애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보호자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낯선 곳도 많이 가고 낯선 사람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애는 매번 즐거워요.

유석중 프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트리버가 안내견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어떤 애들이 그러면 이제 안내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리트리버들이 좋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안내견으로서의 기질을 잘 타고난 엄마 아빠 개를 저희가 뽑아요. 더 외모가 좋고 더 덩치가 적당하며 더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아이들을 엄마 아빠 개로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기질적으로 안내견으로서의 성향을 타고난 애들의 비율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의 비율을 높여놓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질이 어떤 교육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넘지는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질적으로 아무리 타고났다 하더라도 노력이 부족하면 그 기질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건 이거는 명확합니다.

유석중 프로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올바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퍼피워킹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생후 8주 된 어린 강아지를 약 1년 정도를 일반 가정에 잠깐 보내서 일반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도 태우고 지하철도 태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들을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크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안감을 떨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하는데 이때는 보통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연마시키는 거죠.

유석중 프로

가령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다든지 아니면 특정 타깃을 정해 놓고 그 타깃을 찾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동시에 훈련사들이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이 아이들이 월등하나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애가 밖에 나가서 걷는 것 또는 장애물을 피한 후에 그로 인해서 받는 칭찬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다시 말하면 애가 지금 이 일을 이 역할을 너무나 재미있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쁜 거 하고는 또 달라요. 머리가 좋지만 그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머리는 좀 아니지만 밖에 나가는 걸 어느 누구보다 좋아하는 즐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사들은 월 보는 거냐면 애가 진짜 그 일을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좀 보고요. 만약에 좋아한다면 살리는 거고요. 좋아하지 않으면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정직한 게 있어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싫어도 모른 척할 수 있지 모른 척하거나 억지로 가치를 부여해서 그 할 수 있잖아요. 개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지금 싫으면 안 하고요. 지금 좋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사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정말 그 일을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안내 의견으로서 양성을 하는 거다.

우리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자신의 노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직장을 가고 취업을 했을 때도 이게 나한테 참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런 거를 또 내 적성에 맞는 일인가를 또 인간도 탐색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안내견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좋은가 그럼 그 기질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최종적으로 그 노력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안내견 중에서도 되게 귀엽고 깜찍한 이유로 안내견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안내견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일을 재미있어 하지 않는 포인트가 맞을까요?

유석중 프로

일단 표현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네 일이라는 표현인데요. 네 이 일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이 규정한 하나의 용어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는요. 이게 일이 아니에요.

우리

놀이인가요?

유석중 프로

아니 놀이도 아니고 그냥 애한테는 하나의 똑같은 행위라고 봐요. 시각장애인하고 걸으면 우리는 일이라고 표현하고요. 훈련사하고 걸으면 훈련받는다고 표현하고요. 그냥 일반 비장애인이 그냥 걸으면 산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애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그냥 밖에 나가서 걷는 일종의 한 행위에 불과해요. 그렇겠죠 그랬을 때 왜 그러면 우리는 애를 일과 훈련과 그리고 산책으로 표현할까 이걸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개 입장에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과연 알까 모를까 그 질문을 가끔 해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저 최근에 또 원샷 한솔님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조그마한 이 푸들이 주인이 참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행동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 가지고 저는 알 것 같다. 약간은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유석중 프로

저는 개가 안 돼 봐서 몰라요.(웃음)

유석중 프로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이거는 정확히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이 옆에 있는 이 인간이 장애인이나 아니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제가 알겠어요. 애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생존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제때 나한테 밥을 주냐 안 주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은 적은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제때 밥을 주는데요. 그래야 안 굶겠죠. 왜냐 개는 혼자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의 진화적으로 봤을 때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애를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견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개들은 주로 혼자 있는 걸 너무 힘들어 해요.

유석중 프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옆에서 자신을 지켜봐 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죠. 그게 이 아이들한테는 생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한 공간이죠. 네 이것만 확보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가 누구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러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애가 이제 구분해 낼 수 있느냐 그거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밖에만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나갈 수 있으면 애는 그걸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즐겁게 밖에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애네들도 공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누구와 나갔을 때 즐겁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애네들 성향이 낮은 사람들 낮은 공간, 낮은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상황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유석중 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 안내견이 되기 힘든 거고요. 불안감을 별로 안 느끼는 무던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안내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일 뿐이지 이게 일을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는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우리

그래서 또 견사 보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내견이 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유석중 프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낯선 환경에 갔었을 때 반응을 너무 세게 하는 거죠.

우리

그렇죠. 강아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유석중 프로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오버하 뭔가를 더 자극하고 자기를 어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다 불안감으로부터 빚어진 하나의 결과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으면 어떨겠어요? 사람이 오든 말든 그렇죠 뭐 누가 자기한테 와서 신경을 쓰든 말든 아 그냥 그럴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사례이긴 한데요. 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개들 중에서요 가장 품행적으로 훌륭한 개들이 어떤 개들인지 아세요?

유석중 프로

품행이 진짜 좋은 강아지들이 어떤 강아지들이냐면요. 네 예전에 왜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기 걸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같이 생활하는 강아지

유석중 프로

그 강아지들 진짜 품행 좋아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수많은 곳을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애 입장에서는요 신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별스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람이든 개든 어떤 동물이든 그러니까 저는 사람도 동물의 한 종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사실은 해소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감정이 뭐냐 하면 불안감이라고 봐요. 네 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고요. 불안이 덜 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매우 적은 거죠. 그래서 안내견들의 기대 수명이 다른 리트리버들에 비해서 길거든요. 애네들 왜 스트레스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래 사느냐 불안감이 적은 아이들이라서 그래요.

우리

그렇다면 약간 번외 질문으로 프로님은 프로님도 이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불안하고 불안함이 밀려올 때도 있을 텐데 그걸 좀 어떻게 많이 이겨내시거나 그 방법을 찾아가시는 편이세요?

유석중 프로

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그럴 때 가장 큰 불안을 느끼세요?

유석중 프로

당연히 느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누가 맨날 때려요? 364일 때리다가 하루 안 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엄청 불안해요. 차라리 맞을 때가 편해요. 그래서 빨리 그냥 맞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하루 동안 이 사람은 불안해 미치는 거예요.

우리

네 이해됩니다.

유석중 프로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엔 불안의 어떤 감정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저도 당연히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내 미래를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어떨 때 좀 불안하세요?

유석중 프로

어떨 때 불안하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별 불안이 없긴 해요. 제가 리트리버 같은 그런 성향인가봐요. 왜 그런가? 지금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사람들이 왜 불안을 느끼냐면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여 있을 때 그런 불안감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아 내가 이걸 선택을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메커니즘이 이제 좀 들어가냐면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을 먼저 찾아요. 계속 왜냐하면 이걸 내가 다른 걸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걸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Yes와 No가 있다면 Yes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No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유석중 프로

그래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계속 찾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후회. 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선택하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내가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를 생각해요 저는 생각에 메커니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일단은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요. 하다못해 저는 이사 갈 때도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부터 내놔요. 그래야 빨리 다른 집을 얻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다면 프로님께서 원래부터 좀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좀 내가..

유석중 프로

성향이죠.

우리

성향 타고난 성향이다.

유석중 프로

네 그렇게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환자가 그러시거든요. 불안해요. 같이 있는 사람은요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해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근데 망해도 괜찮아 좀 이런 마음이신 건가요?

유석중 프로

망해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최대한 안 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최선을 다해 본다 좋네요. 그러면 약간 일단 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유석중 프로

그렇죠. 그렇게 책임을 다했는데 안 됐다. 그럼 그게 나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딱 미련 물론 미련이 남겠지만 그래도 나의 한계임을 인정한

유석중 프로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지

우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 그렇다면 저희가 약간 틈새로 재미있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저희 회사 안에서도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들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팟캐스트마다 숨겨진 숫자를 적어서 제출하신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부터 99까지의 숫자 중에 프로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숫자 하나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석중 프로

아 그래요 네 숫자요?

우리

네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총 8개의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숫자를 다 적어주신 저희 내부 직원분들에게 선물해 주는 이벤트인 거죠. 네 그래서 랜덤으로 한번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진행할게요.

우리

사실 제가 안내견 학교 홈페이지 보면서 가장 이렇게 좀 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봉사다 했었던게 퍼피워킹입니다. 그래서 이 퍼피워킹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석중 프로

퍼피워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아지의 가정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유석중 프로

8주 된 어린 강아지를 보통 한 16개월 정도까지 집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좋은 품행을 갖출 수 있도록 1년 동안 잘 교육해 줘서 키워서 다시 안내견 학교로 돌려보내는 자원봉사 활동이 퍼피워킹입니다.

우리

정 많은 가정은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유석중 프로

그래서 제가 다정 교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사라고 하는 게 특별한 시즌이 끝나면 학습 시즌이 끝나면 다음 단계를 위해서 위로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맞죠?

유석중 프로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이 1학년 올려보내면서 아이고 너 이제 어떡하지 내 품을 떠나서 너 못 살 거야 너 힘들 거야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하기가 어렵죠.

우리

그렇죠 그래서 또 되게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1년이란 시간 동안 같이 했던 그래서 또 한 사례로는 이 친구가 안내견 활동을 잘 마치고 이제 노견이 되었을 때 안내견을 은퇴한 은퇴견이 되었을 때 그 퍼피워킹을 했던 가정이 다시 또 키우는 그런 영상도 봤는데..

유석중 프로

이 퍼피워킹 자원봉사 활동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역할은 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 행동이 시각장애인에게 과연 어떨까 힘들게 할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회화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마트 같은 데 가다 보면 가끔 거부할 당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사회적으로 또 간접 체험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1년 동안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죠. 그래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는 포대가 됩니다.

유석중 프로

실제로 사실 이것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강아지를 키우고는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해서 신청하셨는데 1년 동안 하고 나니 거의 전문가가 되어 가는 거죠.

우리

그렇죠 실제 퍼피워킹 봉사 신청은 많은 편인가요?

유석중 프로

많아요. 많이 있어요.

우리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은퇴견에 대한 이제 분양인가요? 은퇴견은 네 그 분양도 많은가요? 의외로 은퇴견은 또 분양이 좀 적을 적지 않을까

유석중 프로

은퇴계 자원봉사 희망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꾸준히 계세요. 네 계셔서 지금은 뭐 은퇴견들 같은 경우에도 집이 없어서 뭐 못 나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우리

그렇다면 지금 봉사라고 하면 퍼피워킹이랑 저희 이제 은퇴견 봉사 그리고 안내견 또 탈락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또 분양을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석중 프로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 리트리버를 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견은 안 됐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뭐 정말 잘 지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보내는 거죠.

우리

그렇다면 또 이제 안내견뿐 아니라 안내견과 시각장애인 분이 만나는 그 과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기다림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또 테스트도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 과정이 조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있을까요?

유석중 프로

글쎄요. 이제 뭐 이게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로운데 사실은 이 요건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하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또 어찌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개를 좋아해야 돼요. 시각장애인분들이 다 개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개가 나한테 좋은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개를 좋아해야 애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거든요. 아침마다 밥 주고 그다음에 뭐 배변도 봐줘야 되고 그다음에 털도 빗질해주고 그다음에 놀아주기도 하고 아프면 때로는 병원도 데려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가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 내가 꼭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든 일이지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보고 있으면 안 키우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짓이에요. 도대체 저게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왜 저런 걸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즐거워요. 그래서 일단은 강아지를 좋아해야 되고요. 좋아하면 더 없이 좋은 친구죠. 왜냐하면 좋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와 언제 어디서든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는 뭐 회사도 맨날 같이 다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시각장애인 분이라고 다 안내견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안내견한테 하는 흔한 오해가 뭐냐 하면 목적지 얘기하면 알아서 가 준다는 거예요.

유석중 프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 이름이 안내견 이름이 해달이인데 해달이한테 서울역 가자 그런다고 해서 애가 네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울역까지 가겠냐고요. 그렇죠 안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애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애는 자율주행차 센서가 있는 자율주행차 같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각 장애인은 뭘 해주냐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갈림길에 딱 나왔을 때 내가

애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선택하는 이유는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안내견하고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안내견 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좀 알아. 그런데 그 길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피해서 똑바로 가는 게 사실은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유석중 프로

내가 길은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그 길을 아주 윤곽하게 다니고 싶어 그리고 엘레강스하게 다니고 싶어 이래서 안내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평가가 뭐냐면 이 시각 장애인 신청자분이 혼자서 흰 지팡이를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는지 또는 안내 보행을 딱 우리가 했을 때 안내 보행을 하는 안내자에게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요소 요소마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닐 곳이 있어야 되겠죠. 뭐 내가 지금 다닐 곳은 없지만 안내견이 있으면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워요. 이걸 마치 헬스클럽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석중 프로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이게 뭐 난이도가 높다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교육을 이제 받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안내견을 딱 줬다고 해서 오늘부터 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개 밥은 얼마나 쥔 먹어야 되며 그다음에 뭐 양치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배변을 하면 어떻게 치워줘야 되고 털 빗질은 어떻게 해줘야 되며 또 밖에 나가서 걸을 때는 어떤 포지션으로 애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3주에서 길면 한 4주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만 안내견 학교에 와서 입소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유석중 프로

나머지 2주는 저희 안내견 학교의 훈련사 선생님이 1대 1로 그분이 살고 계신 현지에 저희가 가서 직접 적응 훈련 2주를 실시를 하면 그걸 다 수료하면 안내견 파트너로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되게 세 가지 조건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또 함께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그 그 3주라는 시간이 되게 안내견과 또 안내견파트너로서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내견 훈련사를 또 여기 보면 비장애인 분들도 이제 훈련해 주시고 하는 거 봤는데요. 좀 안내견 훈련사를 꿈꾸는 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유석중 프로

다른 건 모르겠고요. 개와 함께 그러니까 동물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 또는 동물과 지내고 싶은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있어요. 일단 동물이나 사람이나 서로 교감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교감해야 되는데 그 교감하는 과정에서 요즘 특히나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여서 동물과만 생활하기를 원하거나 동물한테만 위로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흔히 많이 해요. 사람은 배신해도 뭐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편협하고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물론 이분들의 내면에는 그동안 많이 상처받고 배신당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개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자칫 잘못하면 집착에 가까워요. 사람한테 집착을 당할 수도 있죠.

유석중 프로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아끼고 동물과 교감하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내가 다른 누군가와와의 관계가 무서워서 동물하고만 관계를 맺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동물은요 내가 위안받고 싶어서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위안을 주고 내가 애정과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요즘 자꾸 힘드니까 동물한테 자꾸 받으려고 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동물한테 줘야 되는 존재지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왜 우리가 어쨌든 나름 이 인류의 지구상에서 봤었을 때 나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우리는 자신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왜 그런 인간의 종이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동물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놀아주고 열심히 챙겨주고 그러면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조금 더 누군가에게 더 관심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유석중 프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좀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뭐 동물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저는 뭐 충분히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나의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동물에게 의지하고 뭔가 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 맞을까요?

유석중 프로

맞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데 왜 그 유명한 그 저기 뭐지 교회 노래 중에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사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유석중 프로

되게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사실은 사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서 위로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노래가 얼마나 크게 쓰였을지 제가 아마 짐작도 못하리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절은 당신이 사랑을 주려고 태어났다고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는 자꾸 살면서 이제 어려워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편으론 받아보아야 또 줄 수도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거 같습니다.

유석중 프로

뭐 그렇기도 해요. 근데 이제 꼭 그걸 동물한테 받아서 남한테 줘야 되냐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다 보면 주는 것만으로도 받는 것만큼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강아지들도 그래요. 애네들이 우리한테 사실은 많은 걸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저의 안내 의견들이 뭔가 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항상 우리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받기만 하잖아요. 버르장머리 없어져요. 근데 애네들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한테 계속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우리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주려고 했고 이제 강아지는 받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지만 또 어느 순간엔 내가 받고 있는 또 그런 게 또 안내견과 또 파트너의 여러 가지의 릴레이션십이나 그런 것 같네요.

유석중 프로

너무 진지하게 갔나 봐요.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고 이런 캐릭터 아닌데

우리

충분히 이제 하면서 이제 욕..하면서 저도 공격을 이렇게 받았고

이제 또 재미있게 풀어도 냈고 했기 때문에 또 편집은 또 우리 편집자님께서 아주 맛깔나게 또 비벼주실 예정이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이렇게 또 저희 팟캐스트 우리들이 사는 세상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종 프로

네 감사합니다.